

기술표준동향

PVC관, 7월부터 새로 태어난다 - 7월부터 PVC관 개정 표준 시행 -



주소령
화학세라믹표준과장
02-509-7300

PVC(경진염화비닐)관은 주로 오·배수관, 수도관, 토목용 하수관 등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배관재이다. 국민 실생활 전반에 쓰이는 중요한 배관재인 만큼 제조사는 PVC관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등을 섞어 만들어 인장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저질·불량 PVC관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어 부식, 파손, 노후화로 인한 누수, 토양 및 식수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이 정기적인 시판품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불량 PVC관이 사라지지 않았고 '08년 시판품조사에서는 KS인증을 받은 39개 업체 중 43%에 해당하는 17개 업체의 일부 제품들이 '치명 결함' 판정을 받아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PVC관 관련 KS표준을 대수술하기에 이르렀다.

'09년 초부터 일반용 PVC관 관련 KS표준의 개정과 시판품조사 강화 등의 품질관리를 통한 저질·불량 PVC관의 제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 개정 표준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보아왔던 회색 PVC관은 흰색으로 바뀌게 된다. PVC관의 색을 흰색으로 바꾸면 산업폐기물 같은 재활용 원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납안정제

사용금지 규정과 장기 내구성 평가항목의 도입으로 품질과 위생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한국연화비닐관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개정 표준의 보급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7월 중에 PVC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술세미나를 실시하고 개정표준이 정착될 때까지 매년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PVC관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배관재인 만큼 기술표준원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 개정표준 :
-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10 배수용 경진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600-1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제1부 : 주름관
 - KS M 3600-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관
 - 제2부 : 리브관

| 기술표준 2009. 7